

100원짜리 '콩의 기적' 일어났다

100원짜리 콩의 기적이 일어났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도(광주일보 12월 19일자 7면) 이후 이들에 대한 온정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수영(여·2·가평)양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 목표 300만원이 조기에 달성됐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수영이네 가족은 국내 환자가 10명도 되지 않는 이소길초산혈증 등 일곱 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해피빈'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치료비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사진> 원래 모금은 오는 2월까지로 예정된 기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졌다. 누리꾼 306명은 기부수단인 '콩'의 최소 금액인 100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저마다 정성을 다해 기부를 했다. 이들은 수영이에게 "힘내라"는 댓글을 달아 응원했다.

자신의 아들도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광주 난치성 질환 두 살배기 수영 양 치료비 모금 운동

전국 기부 온정 이어져 목표액 300만원 두달 앞서 달성

박상욱군 돕기도 339명 동참 현재까지 224만원 모아져

익명의 기부자는 댓글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아이가 곁에 있기에 희망을 잃지 말라"며 수영이 부모를 격려했다.

목표 달성에는 인터넷 카페 2곳이 단체 기부를 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들 인터넷 카페에는 주로 학부모가 육아·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희원들끼리 모금을 하고 연말에 온라

인 베품시장 등을 연 뒤 각각 기부금 90만3100만원과 91만8500원을 쾌척했다.

수영이는 경련으로 인한 뇌 손상을 막기 위해 수면유도 마취제를 주입받으며 24시간 반수면 상태로 지내왔지만 최근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키 146cm의 왜소증인 수영이 아버지(31·지체장애 6급)와 어머니(27)는 "수영이가 스스로 조금 씩 웃는 모습을 보이는 요즘이 가장 행

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수영이가 항암치료 일종인 케모포트(chemoport) 시술을 받고 수영이에게 필요한 특수 분유를 사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편, 해피빈 사이트에 사연이 함께 오른 박상욱(19·가평)군 모금도 339명이 동참한 가운데 목표 300만원 중 224만원이 모였다. 상욱군은 뇌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수모세포증을 앓고 있다.

그의 소원은 유일한 친구인 친형(23·지체장애 1급)과 함께 건강해져서 11세 때 그만뒀던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이다. 7일 현재 모금률은 74%로 오는 2월까지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초록우산재단 관계자는 "한 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닌 콩으로 수백만원을 모을 수 있느냐 걱정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정성 덕분에 값진 결실을 거뒀다"며 "아이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062-351-3513.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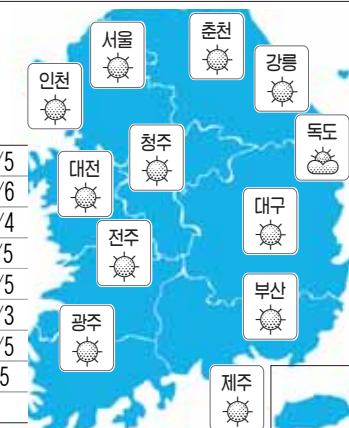
해돋이 07:41 달뜨기 20:36
해질 17:37 달지기 09:15

발개진 코골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4/5	보성	맑음	-4/5
목포	맑음	-1/5	순천	맑음	-2/6
여수	맑음	-2/6	영광	맑음	-3/4
나주	맑음	-4/5	진도	맑음	-1/5
완도	맑음	-1/5	전주	맑음	-6/5
구례	맑음	-5/4	군산	맑음	-6/3
강진	맑음	-2/5	남원	맑음	-8/5
해남	맑음	-2/5	홍산도	맑음	2/5
장성	맑음	-5/4			



바다 날씨

시해	암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1.0~2.5	북서~북	0.5~3.0
남해	남부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남해	암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4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43	09:05
	16:22	21:38
여수	11:03	04:37
	23:06	17:03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	☀	☀	☀	☀	☀	☀
-3/7	-2/5	-3/7	-2/7	-3/7	-3/7	-1/7

장휘국 "300 교원, 수업나눔 운동 전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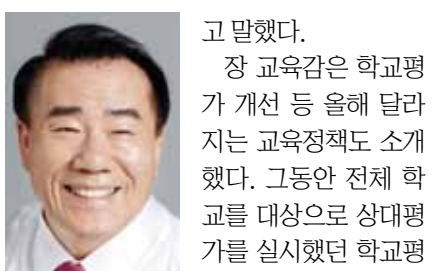
광주교육청 올해 사업계획

전체학교 자율평가 전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7일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해 배움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300 교원 수업나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수업나눔 운동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장 실천운동"이라며 "월 1회 이상 참관 또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공개해 수업방식을 공유하겠다"



전환하고,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평가도 보고서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다른 시·도보다 1년 앞서 전면 시행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이다.

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학교평가 개선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정책도 소개했다. 그동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했던 학교평가를 학교자율평가로

또 8시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하고, 신입생 반편성 고사를 개선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서술형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혁신교육 속에는 좋은 교육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열망이 집약돼 있다"며 "혁신교육의 가치와 학교 현장에서의 실용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변화는 정착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두환 차남 재용씨 체포

'위증교사' 조사후 풀려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풀려보냈다.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의 임목비 허위계상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한 바 있다.

재용씨의 범죄사실에는 오산 땅을 팔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박씨도 불러 말을 바꾼 경위를 캐물었다. 재용씨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4)씨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진술을 놓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재용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락 위생 점검

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드림스타트 직원과 아동위원회의 회원들이 양산동의 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방문,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아동에게 전달될 도시락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 55% "교육감 직선제 찬성"...반대보다 22%P 높아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하는 국민이 55%로 반대보다 훨씬 많다는 국회연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24일 온라인을 통해 성인 2000

명(만 19~75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정책·현안을 설문한 결과,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1098명(54.9%)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656명(32.8%)으로 찬성보다 22.1%포인트 낮았

고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응답자는 246명(12.3%)이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516명 가운데 329명(63.8%)이 찬성을 선택,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여론조사 당시 시·도교육감 직선제 찬성률 비율이 49.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연협뉴스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쪽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전(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